미국도서관협회 2005년도 연차총회 전시회 참가

조명준 2006서울WLIC 조직위원회 사무처 사업팀원
go9ma@korla.or.kr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조직위원회에서는 2006서울WLIC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2004 미국도서관협회(ALA,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연차총회에 이어 2005 ALA 연차총회(6/23-29, 시카고, 일리노이) 전시회에 2006서울WLIC 홍보부스를 설치, 운영하였다. 이를 위해 금번 IFLA 이사로 피선된 한상완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김도미 사업팀장, 조명준 직원이 참가하였다.

2005 ALA 연차총회에 참가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던 중 접했던 가장 놀라운 소식은 참가자가 23,000명에 달한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크다고 해도 도서관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던 탓이기도 하였다.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2006서울WLIC를 홍보할 것을 생각하니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였다. 허나 놀라운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여장을 풀고 부스 세팅을 하기 위해 전시장에 도착한 우리는 전시회에 설치된 부스의 수가 4,000여개라는 말에 또 한 번 놀라야 했다. 실제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은 가히 '부스의 바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부스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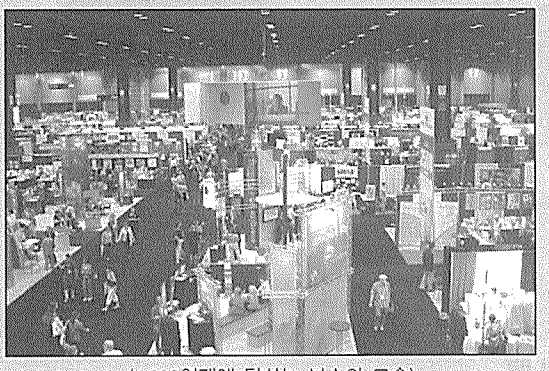
2004년도 ALA 총회에 이어 두 번째로 2006서울WLIC 홍보부스를 설치하며 우리가 가장 걱정한 것은 부스의 위치와 꾸밈새였다. 그러나 막상 전시장에 도착해서 부스를 살펴보니 만족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전시장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만족스러웠으며 이번 전시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한 결과 부스의 기본 구조 또한 다른 부스들과 차별화되어 오가는 이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기 때문이었다.

큼직큼직한 물건들로 가득한 서양식의 전시회에 동양미가 물씬 풍기는 소품들로 아기자기하게 꾸민 우리 부스에는 첫날부터 많은 이들이 다녀갔다. 바삐 지나쳐 가던 사람들도 무심코 한 번씩 발걸음을 멈추고 '이것이 과연 뭐하는 곳인가?' 하는 눈빛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한참을 머물다 가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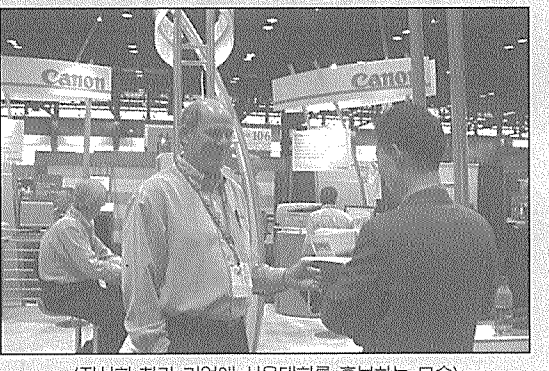
전시회 둘째 날인 26일에는 시카고 힐튼 호텔에 마련된 IFLA Update 세션에 참석하여 현 IFLA 사무총장인 Peter Lor와 40여명의 세션 참석자를 대상으로 김도미 팀장이 2006서울WLIC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세션 내내 2006서울WLIC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였으며, 무엇보다도 2006서울WLIC를 준비하고 홍보하는 조직위원회의 열의에 큰 호응을 보였다. 27일에는 IFLA 사무총장인 Peter Lor와 IFLA 관계자들이 우리부스를 방문하여 한상완 집행위원장, 김도미 팀장과 함께 2006서울WLIC에 대해 장시간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시회 폐막 전날 저녁 시카고 공공도서관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Reception에는 가깝게는 남미에서 멀리는 아프리

카에 이르기까지 세계 각국에서 ALA 연차총회에 참가한 백여 명의 참가자들이 참석했으며, 2006서울WLIC에 관한 내용은 물론 현재 첨예하게 대두되는 도서관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화제를 거론하며 서로간의 교류를 더욱 돈독히 하였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차기 IFLA 회장으로 피선된 Claudia Lux(임기: 2007-2009) 현 IFLA 대회 기획위원장을 만나 2006서울WLIC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을



〈4,000여개에 달하는 부스의 모습〉



〈전시회 참가 기업에 서울대회를 홍보하는 모습〉

상의하였고, 상호간 협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약속하였다.

총회가 끝나는 날까지 2,000여명의 참가자들이 우리 부스를 거쳐 갔으며, 그들 중 대다수가 2006서울WLIC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이들이었다. 작년도 ALA 연차총회에서 설치했던 홍보부스를 찾았던 이들의 대다수가 과거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미국인 사서와 재미 한인 사서들이었다면, 올해 우리 부스에는 IFLA 회장단, 오슬로WLIC 관계자, 미국 각지의 사서들과 IFLA 회원 등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들이 대거 찾아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전시회에 참여한 국제기업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국내 참여 기관간의 역할분담, 부스 운영 전문 인력 문제, 부스의 위치, 2006서울WLIC 준비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 작년도 ALA 연차총회 전시회 참가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준비를 한 끝에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2006서울WLIC를 계기로 한국 방문을 계획할 가능성이 많은 재미 한인 사서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인력과 시간의 문제 등 여러 장애물에 걸려 여전히 미진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우리부스를 찾은 재미 한인 사서 및 학계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미국 내 한인 사서는 물론 이와 관계된 여러 분야에도 지속적으로 2006서울WLIC를 홍보하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응원하겠다고 하시어 큰 힘을 얻었다.

이번 ALA 연차총회 전시회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또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참가자가 워낙 많다 보니 ALA 세션 및 워크숍이 진행되는 장소와 전시회 장소가 이원화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반드시 우리부스를 찾아주어야 할 IFLA와 WLIC에 관심 있는 참가자들이 많이 오지 못했으며, 각 세션이 열리는 장소로 시간에 맞춰 이동해야 했기에 애써 우리 부스를 찾아왔더라도 일정에 쫓기곤 했기 때문이다.

이상에 언급한 것처럼 아쉬운 점도 얼마간 있으나 2005 ALA 연차총회에서의 2006서울WLIC 홍보활동은 그 활동량이나 참가자들에 대한 접근성, IFLA 관계자와의 토의 내용 등으로 보아 짧은 기간 동안 무척 많은 성과를 얻었음에 틀림없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1년 앞으로 다가온 2006서울WLIC를 그저 좋게만 포장하고 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오래도록 좋은 기억으로 남는 대회가 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